

# 여호수아(6) 아이 전투

## ■ 본문

수 7:1-15

## ■ 시작 찬송가

423장(동 213장)

## ■ 헌금 찬송가

421장(동 210장)

### ▶ 독이 된 승리

여리고성에서 경험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이 되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졌다.

### ▶ 썩은 사과 이론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사과도 썩는다. 마찬가지로 죄와 불평은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성이 있는 문제는 격리시켰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이성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도, 참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고, 그 진노를 보이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 아이 전투에 나타난 문제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쉬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성에서 크게 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1) 정탐꾼의 문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 전투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여리고에서와 달리 자세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보고 온 후 지나친 자신감을 보입니다.

수 7:3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의 보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도 아이성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아이성 앞에 가는 것을 수고라고 말합니다. 이삼천 명의 군사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대로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수 7:4-5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 (2) 여호수아의 문제

앞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가 패배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는 환란 당한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자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 7:7-8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불순종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고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 수 7: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 수 7: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백성 중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아간의 불순종 문제였습니다.

### (3) 아간의 문제

아간은 아버지의 이름뿐 아니라 증조부까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간은 유다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아간은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를 보고, 탐내었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내고, 그것을 취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간은 이 문제가 별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아셨습니다.

- 수 7:1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 수 7:21(상)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아간의 죄를 드러내어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기를 기뻐하시거나 마음이 좁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죄가 지닌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기를 원하셨기에 아간의 문제를 발견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 수 7:13(하)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 수 8: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의 모습을 드러내어 고치게 됩니다. 숨겨진 모든 불순종의 결과들을 찾아내어 여호와 앞에 쏟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문제를 바로잡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고 이번에는 승리했습니다.

### 패한 전투에서 배워야 할 것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모습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 장면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과 회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 '죄'와 관련된 교리 문답

- Q: 죄가 무엇입니까?  
A: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 Q: 우리에게서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A: 원죄와 우리가 지은 죄인 자범죄가 있습니다.
- Q: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A: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약성경의 요점이 되는 가장 귀중한 성구는 어디입니까?  
A: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 Q: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A: 신구약성경, 즉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딤후 3:16-17)
- Q: 교회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A: 세례와 성찬
- Q: 세례는 무엇입니까?  
A: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 공동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